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블랙홀’에 빨려드는 정치권

국정원 개혁·정기국회·민주 장외투쟁 등 모든 정치 핫이슈 잠재위

국가정보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수사 일명 ‘이석기 사태’가 정치권의 모든 쟁점을 순식간에 끌어내리며 정치권의 블랙홀이 돼가는 형국이다.

그동안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원 개혁 논란은 슬그머니 사라져갈 듯한 조짐이고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 회담 방식 논란도 자취를 감췄다. 특히 2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도 기존 여야간 대치 상황에 이석기 사태의 파장까지 연결되면서 초반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혼돈의 정국**=국정원이 지난 29일 밤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이 의원의 강연이 포함된 진보당 RO(혁명조직) 회합의 녹취록까지 일부 언론에 공개되자 여야는 수사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당의 명운이 풍전등화가 된 진보당은 일단 녹취록에 대해 “날조수준은 왜 왜곡했다”며 반박하는 한편, 국정원의 사찰을 폭로하며 반격을 가했다. 이석기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서 거론돼온 국정원(에 대한) 협조자가 파악됐다”며 “국정원은 (이 협조자를) 거역으로 매수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사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아련에 대한 반격 기회로 삼아 강공 모드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과 진보당 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차질 없앨 만큼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다들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이 의원 자격심사나 진보당 정당해산 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진보당과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도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1일에도 서울역광장에서 국민결의대회 형식의 대규모 대외 집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진보당 인사들이 시국회의 주최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의식해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촛불집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파행 우려**=2일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제대로 순항할지 미지수다. 민주당이 일단 정기국회 개최에는 참석할 뜻을 비취 개원까지는 무난하겠지만 여야가 아직 사일 정을 합의하지 못해 초반부터 파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주당이 상하에 등 때밀러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결산심사·예산안 처리·법률심사 등

의사 일정에 제대로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이번 주 중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데 2일부터 정기국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전제돼야 한다.

우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일(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과 더불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 건과 국정원 개혁은 별개지만 대한민국의 이익과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라는 4대 대원칙은 동일하다”며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가 국회 동의를 함의하지 못해 초반부터 파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주당이 상하에 등 때밀러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결산심사·예산안 처리·법률심사 등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가다

국회는 2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전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 일단 정기국회 의사 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국가전복 시도라는 사안의 위중함과 긴급함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

리 처리하자는 기류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룰 경우 ‘중복세력’과 한통속으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체포동의안에 국회에 오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2일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다면 이른바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만 민주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회 정보위를 먼저 열어 논의하자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2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부산서 세몰이 무소속 안철수

“새정치 세력으로 새누리와 경쟁할 것 私黨에는 반대...저도 구성원 한사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일 재·보선을 두 달 앞두고 1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부산을 찾아 영남 지역 세몰이에 나섰다.

부산은 안 의원의 고향이자 초·중·고교 시절을 보낸 곳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안철수와 함께하는 부산시민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은 부산의 전체 아련·중도층을 대표해 새누리당과 건강하게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이 새 정치의 심장이 돼달라”고 말했다.

특히 ‘장강의 뒷물결은 앞 물결을 밀어낸다’는 한시를 인용, “기득권 정치 세력이 적대적 공생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고집한다면 새 정치의 도도한 국민의 물결은 거대한 장강의 물결을 밀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같은 장소에서 정부(안)에 이 지역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화와 관련해 2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사당(私黨)이 되면 안 된다”며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서 같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원칙에 대해서는 “사람이 먼저”라며 “사람이 모이기 전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에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 때문에 정치권 밖 인사들이 정치권 진입을 망설이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제가 그런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이것이 영동한 정치적 목적으로 쓰이는 일은 없도록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오는 5일 인천, 8일 수원에서도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도지사 “광주·전남 국비예산 확보 적극 지원해달라”

시·도-민주당 예산·정책協

지역 현안사업 협조 당부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30일 민주당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각각 열린 협의회에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역의 필수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유보됐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차·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도심하천 생태복원 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빛그린 국가산단의 자동차산업 임대 전용 국가산단 지정, 아시아문화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도 국비예산과 지역현안에 대한 '민주당-광주광역시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비확보를 위해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청 제공)

전당 법안 위탁 운영 무산, 상품(금)거래 설립, 광주은행 지역 환원,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 6개 SOC사업, 양식업 조성 등 농수산 분야 3개 사업, 미래 전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

동력사업으로 항공기 비행종합시험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을 설명했다.

또 농어업 보조금 제도 개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체계 개선, 관광시설 개발 예정부지 취객 주차 개선 등 건의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등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현안사업과 제도 개선사항이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내용임을 공감하고 민주당 해결위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하고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과 지역 발전을 위

한 인프라 구축,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국회 지원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지는 2014년 국고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문제사업 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난 15년간 9,000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 성공전략!! 부동산 실전경매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전문)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특강,
KBC-TV 아침마당 출연강의 등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세미나토론자 참여

13년 9월~12월 선착순 70명 마감

장소	교육대 평생교육원
일시	매주(화) 주간: 10시~19시
연락처	062)520-4243
장소	전남대 평생교육원
일시	기본반 매주(수) 15시/ 19시 실전경매 매주(목) 14시/ 19시
연락처	062)530-3873~5

강의료 12만~18만 (4개월 강의료)

특전 : 공인발판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취득 하도록 책임지도

2013년 2학기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7기)	광주교육대학교(8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3. 9. 6(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3. 9. 7(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 2013. 9. 21(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3. 9. 5(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3. 9. 7(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3. 7. 25(목) ~ 9. 7(토)	2013. 7. 25(목) ~ 9. 7(토)
수업기간	2013. 9. 6(금)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3. 9. 2(월) ~ 2014. 2. 2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자격인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사(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작성 심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사(1급-3급) 취득 기회 부여	·1.자격인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사(사)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원문작성 심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사(1급-3급) 취득 기회 부여
문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 1.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만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
-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로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미복용시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30mmHg / 80mmHg 이상에서 180mmHg / 110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중성지방 400mg/dl 미만이신 분
- 또는 그 외 진료를 통해 기타 조건이 만족되시는 분
- 2.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혈액 및 뇨검사 / 신체검사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혈압 검사
-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제공 / 정규 방문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 3. 참여기간 및 방문횟수**
선별검사로부터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총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회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참여 기간 및 방문 횟수 변경됨).
- 4. 연구기관** : 국내 주요 종합병원
- 5. 연락처** : 본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요.

상담원(콜센터) 연락처 : 070-4495-1096